

레이메이노타키 폭포

레이메이노타키 폭포는 기쿠치 계곡의 방문자 센터에서 이어지는 산책로에서 맨 처음 나오는 폭포로서 아마 계곡에서 가장 많이 사진을 찍는 장소일 것이다. 폭포수는 보통 폭포의 가운데에 있는 이끼 낀 큰 바위의 한쪽에 치우쳐 흘러내릴 뿐이지만, 비가 오거나 하여 강의 수위가 올라갔을 때에는 이 바위 주위에 몇 개의 작은 폭포가 형성된다. 낙차는 5 미터로 비교적 완만하여 물보라가 새벽의 안개와 닮았다는 데서 새벽을 의미하는 ‘레이메이(여명)’라는 이름이 붙었다.

폭포 아래의 용소는 잔잔하여 걸어서 폭포 가까이까지 가야 물소리가 들린다. 폭포에서 산책로를 오르면 1823 년에 다이묘(넓은 영지를 다스린 대영주)가 건축 자재로서 심은 삼나무 숲이 있다. 벌채되지 않고 남은 이 나무들은 강 위에 우뚝 솟아 날다람쥐의 서식지도 되고 있다. 날다람쥐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무에 올라 나무 껍데기를 벗겨내기도 한다.